South Asian Research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bbreviated Key Title: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 Volume-7 | Issue-2 | Mar-Apr -2025 |

DOI: https://doi.org/10.36346/sarjhss.2025.v07i02.013

Original Research Article

Our Mother Bohwa Maria (Tcheonzamun 129th-144th)

Hyeonhi Regina Park¹, Sangdeog Augustin Kim^{2*}, K. Daegon-Andrea Kim³, Jiah Anna Kim⁴, Sangmin Lee⁵, Rosa Kim⁶, Alain Hamon⁷, Sohwa Therese Kim⁸

¹Canaan Elderly care center, (99 Byeonjeong 6 gil,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former address) Department of Elderly care and welfare, Joongbu University, Kumsan, Republic of Korea

²(former address)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and Animal Resources Science, Joongbu University, Kum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ROK)

³268-3 Dosol-ro,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⁴An attaché of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in Madagascar, (former address) Départment d'Expertise Economique, Université de Paris-Est Creteil, Paris, France

⁵(former address) Local public official related to youth policy, Okcheon, Republic of Korea.

⁶A responsible of 'Cité Universitaire de Paris' in France. (former address) Specialité d'Economie politique, E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Paris, France

⁷Ingenieur ENSEEIHT, enseignant en mathematiques et informatique. (former address) Ecole Pascale, Paris, France. Eib La Jonchere, Bougival, France

⁸(former address) Department of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Corresponding Author: Sangdeog Augustin Kim

(former address)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 and Animal Resources Science, Joongbu University, Kumsan, ChungchongNamdo, Republic of Korea (ROK)

Article History

Received: 13.02.2025 Accepted: 21.03.2025 Published: 26.04.2025

Abstract: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introduced Tcheonzamun to Western world. Tcheonzamun is called in English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Dallet (1874) indicated that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Chinese culture and the Korean culture. However, Dallet (1874) described that Tcheonzamun was commonly utilized both in the ancient China and in Korea.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千字文) means writings (文) of the thousand (千) character (字). And in English, Tcheonzamun is called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his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is called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English. The title of this study is 'Our mother Bohwa Maria (Tcheonzamun 129th-144th)'.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41-144 賴(Loe) 及(Geub) 萬(Man) 方(Bang). My husband! Even though you did not do (賴) these favorable things. If you have good intention for our marriage life, it is occurred (及) whole (萬) in the world (方).

Keywords: 141-144 賴(Loe) 及(Geub) 萬(Man) 方(Bang). My husband! Even though you did not do (賴) these favorable things. If you have good intention for our marriage life, it is occurred (及) whole (萬) in the world (方).

INTRODUCTION

French Missionary Dallet (1874) introduced Tcheonzamun to Western world. Tcheonzamun is called in English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Dallet (1874) indicated that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Chinese culture and the Korean culture. However, Dallet (1874) described that Tcheonzamun was commonly utilized both in the ancient China and in Korea. It is deeply believed that Tcheonzamun was established by Chinese people (Han, 1583). But several researchers found that Tcheonzamun poem was well translated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Kim, 2023) and on the basis of Korean grammar (Park *et al.*, 202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ho is responsible for the making of this great masterpiece of East Asia, Tcheonzamun.

Copyright © 2025 The Autho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CC BY-NC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for noncommercial use provided the original author and source are credited.

MATERIALS AND METHODS

There are several methods for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千字文) means writings ($\dot{\chi}$) of the thousand (千) character (字). And in English, Tcheonzamun is called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The first method is through Korean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Kim, 2023). The other method is on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In addition, there is the deleting method (Kim, 2023). The range of this study is (Tcheonzamun 129th-144th). On the present research, the translation was done on the basis of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 on Tcheonzamun (Park *et al.*, 2021).

RESULTS AND DISCUSSION

This work concerns the translation of Tcheonzamun poem. Tcheonzamun is called as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in English. The title of this study is 'Our mother Bohwa Maria (Tcheonzamun 129th-144th)'.

<Number in Tcheonzamun. Chinese character (Pronunciation shown in Korean language on English alphabet)>

129-132 鳴(Myeong) 鳳(Bong) 在(Zai) 樹(Su).

My husband! Do you imagine that the bird of wonder (the phoenix) (鳳) appeared (在) and the bird is crying (鳴) on the tree (樹)? It may be magnificent!

133-136 白(Baeg) 駒(Ku) 食(Sig) 場(Zang).

My husband! However, a white (白) and small horse (駒) eats (食) its feed in the narrow yard (場), it is truly a common thing, nothing special.

137-140 化(Hwa) 被(Pi) 草(Tcho) 木(Mog).

My husband! The common, not special, horse has a dump, the dump (feces) changes into the farm yard manure (a kind of fertilizer). And this small thing can make the great thing (化). The tree (木) and the grass ($\bar{\phi}$) can grow because of the manure, and the field will be covered (被) fully with the grass and the tree.

141-144 賴(Loe) 及(Geub) 萬(Man) 方(Bang).

My husband! Even though you did not do (賴) these favorable things. If you have good intention for our marriage life, it is occurred (及) whole (萬) in the world (方).

The next is the original writing of this research. It was written in Korean language on 11 December 2024.

우리 보화 엄니 - '씨앗'입니다 - 우리 대전 루도비코 형제회 입회와 유기종신 피정 (2024 년 9 월 7 일-9 월 8 일)에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15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우리 보화 엄니..... 제가 제목만 "우리 보화 엄니"라고 하면 안되겠지요? 저도 제 엄니 이야기를 써 보려고요. 어릴 때, 우리 집에서는 수박과 참외를 많이 키웠어요. 큰물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농사를 지으셨지요. 그 참외밭에서 제가 하는 일은 얇게 자른 대나무를 들고 참외의 순(줄기 끝에 있는 부분)을 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꿩이 새끼를 품고 그냥 참외와 수박밭에 앉아 있어서, 어미와 새끼들을 모두 가슴에 안고서 데리고 집으로 가져왔지요. 모처럼의 고기 먹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때는 추석과 설 명절에 고기를 맛볼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 날은 특별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야, 이놈아, 어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놓고 와!"라고 공을 세운(?)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투덜거리며, 꿩들을 데려다 두고는 서운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가져와야지!"하며 가보니 꿩은 그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피난 가 버린 뒤였습니다. "살아있는 생명(生 命)을 존중하라"고요. 이것이 우리 엄니 가르침이셨어요. 앞의 (멘델레프)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학벌도 없는 엄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니는 술을 좋아하시는 아부지랑 사는 것을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부지 술버릇을요. 아들인 제 입장에서 보면 아부지 술드시면 더 인간적으로 되어지셔서 좋았는데, 엄니에게는 지옥(地獄) 같으셨나 봅니다. 그래도 엄니는 자식들 교육에 온 힘을 다 기울여셨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엄니 대학원 가도 되요?"라고 했더니, "대학원 가고 싶냐? 그럼 해보그라."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서 돈을 버는 대신 다시 학교로 향할 수 있었지요. 그때 집안이 많이 힘들었는데도요... 엄니 고마워라우!(엄니는 전라도 사투리로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2011. 2. 28 엄니 큰아들 상덕아오스딩이 이 글을 써요. 이 글 발표장에 제 아내 현희가 함께 해줘서 좋았습니다. 2011 년 6월 22일 강의 직전에 저(김 아오스딩)에게 안수를 해주신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임 한욱 루피노 신부님 고맙습니다. 24 (노 상민 토마스 신부님 말씀에서) '씨앗'입니다 (천자문 셋 (백구승장)白駒食 場)..... 정말 멋있는 천자문 세번째입니다. 제목은 "'씨앗'입니다" 이고요, 이번 글은 1000 자문에서 129-144 번째 입니다. (명봉재수) 鳴(/) 鳳(^) 在(^) 樹(^). 만약 어느 나무(樹) 위에(在) 전설에나 나온다는 봉황새가(鳳) 울고

있다면(鳴) 이것 참 놀랍고도 대단한 일이겠지요? ['봉황새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고, 다음 줄에 나오는 '말이 밥 먹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일인 것이지요?] (백구식장) 白(/) 駒(-) 食(/) 場(/). 그렇지만 마당에서(場) 밥 먹고 있는(食) 흰색(白) 새끼 말 한마리가 있다면(駒) 그까짓 것 흔한 일이지요. [천자문을 쓴 분은 다음 줄에서, 풀과 나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풀과 나무를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被)'고 쓰고 있습니다.] (화피초목) 化(`) 被(`) 草(V) 木(`). 그런데 이 새끼말들이 똥을 누고 그 똥이 거름이 되는 "이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化)". 네, 나무와(木) 풀이 자라면(草)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땅을 차츰 풀과 나무로 뒤덮게 만드니까요(被)! [노 상민 토마스 신부님께서 오늘(2월 1일) 금요일 저녁 미사에서 해주신 강론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씨앗'입니다." 씨는 땅에 묻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연하고 초록 잎 약해 보이지만,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뛰어넘는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힘으로 뿌리를 뻗고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이 세상에 와 있다."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 와 있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 아니고 하느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그러니 이 작은 공간 안에도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 대대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살고 계신 여러분, 하느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오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초대하셨습니까?] (뢰급만방) 賴(`) 及(/) 萬(`) 方(-). 세상(方) 모든 곳에(萬),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한 일이 아니면서도(賴) 이러한 흐름이 두루 두루 널리 퍼져 나가게 됩니다(及). 이번 글은, 평범해 보이는 것에서 아주 크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요. 저희 부부에게 천자문 저자가 "허황된 큰 것 보다는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서 뭔가 찾아보라"고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김 상덕 아오스딩과 박 현희 레지나 부부 드립니다. 2013년 2월 1일 저녁. 다음은 우리 대전 루도비코 형제회 입회와 유기종신 피정 (2024년 9월 7일-9월 8일)에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이병돌 요셉 신부님과 호인환 요한 형제님과 송인석 요셉 형제님과 서승희 글라라 자매님과 정현훈 아가다 자매님과 홍인숙 로사 자매님과 정옥란 사비나 자매님과 김현철 가브리엘 형제님과 최영아 마르타 자매님과 문보경 루시아 자매님과 이현주 카타리나 자매님과 김윤숙 안나 자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희랑 아오스딩의 예수님 주님 아멘 고맙쏘잉 학교 가는 뻐스에서요. 우리 둘의 주님 아멘 고마와라우 엄니 아부지도 함께 해주셨어라우 (마음으로요) 주님 아멘 고마와라우! 김상덕 아오스딩과 박현희 레지나 부부 드립니다, 2024년 12월 11일.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41-144 賴(Loe)及(Geub)萬(Man)方(Bang). My husband! Even though you did not do (賴) these favorable things. If you have good intention for our marriage life, it is occurred (及) whole (萬) in the world (方).

Our Lord! You have guided two of us, Hyeonhi and Augustin, and our five children for this work! Thank you so much, amen!

ACKNOWLEDGEMENTS

The authors thank Mr Ilsoo Joseph Kim and Mrs Bohwa Maria Kim, Mr Yeonghag Park and Mrs Hilye Sarah Kim, Father Yang_eob Thomas Tchoi and Father Jean Blanc and Father Hifumi Iwazaki and Father Xavier Ha and Father Thomas Gil and Father Ikseon Gregorio Choi and Father Kyu-sik Cho, Mrs Tamako Hayashi and Mr Yoshihiro Hayashi, Professor Francine Tenaillon and Professor Nicolas Tenaillon, Professor Byeong Hwan Kim and the members of Chosun University High School, Professor Tae Song Koh and his wife, Professor Sook Ja Nam, Mrs Sookja Martha Min, Mrs Kisoon Cecile Song, Mrs Toshie Nakano and Professor Shigekata Yoshida and Professor Mitsuaki Ohshima and Ryosei Kayama, Professor Yongkuk Thomas Kim and his wife, Father Wonhwa Joseph Lee and Father Hanyoung Marc Lee and the member of Daejeon Nae-dong Catholic Church, Father Byungdul Joseph Lee and Father Ildefonso Oh and the member of Daejeon Ludovich of Ordo Franciscanus Saecularis, Professor Byoung Hoon Park and the student of Joongbu University, all the members of Jungni Middle School, staff sergeant Yong-Soon An and the truck driver (he rescued Augustin from the traffic accident), Okja and Hwansik and Seonju-Pilseong couple and Jieun Agatha and Céline and Aïlyne. The authors thank the Lord Jesus Christ so much!

REFERENCES

- Dallet CH. (1874). Histoire de l'Eglise de Corée (History of Korean Catholic Church). Victor Palme. Paris. France. pp.11-99.
- Han, S.B. (1583). Hanseogbong Tcheonzamun ('The thousand character essay' written by Hanseogbong). (edited by Yeong Bae Zeong in 1984 on Songwon Publishing Company in Seoul. pp.1-136.):
- Kim, S.A. (2023). My Darling Hyeonhi, I am not ashamed of hearing your words! (Tcheonzamun 769th-784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5(5): 202-205.

•	Park, H. R., Kim, R., Hamon, A., Kim, S. T., Kim, S. A. (2021). Augustin often reminds Mrs Hilye Sarah Kim himother in-law (The Second Translation of Tcheonzamun 449th -464th). South Asian Res J Human Soc Sci, 3(5): 340, 341.